

‘걷고 싶은 도심 하천’ ‘나주천 생태물길조성 한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첫 삽... 도심 관광명소화·역사문화 공간 추진

2025년까지 936억 투입...산책로·교량신설·노후하수관거 등 정비

나주의 진산인 해발 592m 금성산에서 발원해 원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관광명소로 대변신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도심 소하천인 나주천을 공공적으로 국가하천 영산강과 조화롭게 연결해 재해예방, 생태복원, 관광명소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28일 나주천 인근 나빌 레라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윤병태 시장, 황광민 시의회부위원장, 지역도·시의원, 시민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착공식을 했다.

이날 착공은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복원 공모사업 선정 이후 5년 만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277억)’,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정비(259억)’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400억)’ 등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한다.

3개 국가 공모사업 통합 발주는 전



국 지자체 최초 사례로 꼽힌다.

오는 2025년까지 총 936억원을 투입해 나주천 3.36km구간에 걸쳐 ‘수생태복원’, ‘여울형 어도·어류 서식처 복원’, ‘징검다리 산책로조성’ 등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도심하천 생태복원을 중점 추진한다.

단조로움을 탈피한 시가지에 형태산책로를 만들고, 하천 사이에는 징검다리를 놓아 시민과 탐방객이 물길을 따라 걸으며 원도심 곳곳의 매

력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딱딱한 이미지를 줬던 하천 보는 즐거움도 여울형 어도(낙차공)와 어류 산란처를 조성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생태계로 복원한다.

생태복원과 더불어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 ‘하천 바닥을 약 2m 굴착’하고, ‘배수펌프장·우수지 증설’, ‘교량 11곳 재가설·2곳 신설’, ‘노후 차집관로 3.04km 개량’, ‘호안 3.21km 정비’, ‘맨홀·우수토실(雨水

吐室) 137곳 개량’ 등을 통해 치수 안전성을 강화한다.

특히 용수부족으로 탁하고 정체된 심계천으로 전락한 나주천에 영산강변에서 취수한 유지수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나주 서성문과 동성문 인근에는 소실됐던 ‘서수구문교’와 ‘동수구문교’ 등 교량 2곳도 복원·신설한다.

교량 하부 하천 옹벽에는 나주의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한 벽화 등으로 꾸미고 복원·신설한 교량 2곳에는 4대문을 상징하는 성벽 형태의 옹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량 난간도 석담간, 남과객 마루, 나주향교 열주 등에서 착안한 무늬로 디자인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나주의 멋과 운치를 극대화한다.

나주시는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을 ‘재해예방·수질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역사문화 공간조성’과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목표로 확대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걷고 싶은 도심 하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의 공간, 관광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무안,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채종포 조성

한우 품질 높여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무안군은 우수한 영양성분에 수확량이 많고 사료적 가치가 높아 주목받고 있는 겨울철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채종포를 2ha규모로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가축이 좋아하는 밀의 품질과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조사료용은 10월 중·하순에 심어 이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수확한다.

출수기 건물수량은 8.6톤/ha으로, 청보리에 비해 46%, 호밀에 비해 48%,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보다는 6% 더 많다. 조사료의 영양적 가치도 높고, 종자 분리를 위한 단백질 함량과 가스화양분 함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기성성 성분도 풍부해 운동력과

지구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옥타코사놀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이소오리엔틴 등도 함유하고 있다. 또한 트리티케일은 사일리지(담근먹이) 수량이 많고 소에 먹일 경우 일반 조사료를 줄 때보다 소의 체중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번에 조성한 채종포에서는 트리티케일 70ha 재배가 가능한 종자 11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트리티케일은 농가들에게는 아직 매우 생소한 작물이지만 사료적 가치가 큰 만큼 앞으로 수입산 사료작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종자 분야를 희망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작물환경정보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화순, 산림분야 연이은 수상 ‘쾌거’

산림행정·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 2개 부문 ‘우수기관’

화순군이 산림 분야에서 연이은 수상으로 행정력을 입증했다.

화순군은 지난 27일 전라남도 주관 ‘산림행정종합평가’와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행정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보전 ▲산림휴양 ▲공통 지표 총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군은 2022년 목재산업단지 조성(50억), 생활밀착형 숲 조성(10억) 등 4개 사업, 68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이어 나무심기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약 65만 본의 나무를 심고 민간단체·주민 주도의 생활 속 숲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 숲 속의 전남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로 산림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불거리 가득한 공원 조성, 산림 휴양시설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산림 행정을 추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시행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군민 백신비 50% 지원

담양군은 내년 1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무료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해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진행한다.

지원 사업은 백신 소진 시까지 실시하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백신비의 50%를 지불하고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기존 만 60세 이상 유료접종 대상자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담양=조성준 기자

접종대상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군민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고,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한 뒤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중등도 이상의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 급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종받을 수 없다.

담양=조성준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민원 대화의 날’ 큰 호평

시민 고충민원 직접 해결...격이 다른 소통행정 추진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원인들을 매월 직접 만나 대화하며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인과 대화의 날’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 대화의 날은 해묵은 민원이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소통창구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에 노 시장은 지난 27일 올해 세 번째 대화의 날을 시청 대화의실에서 열어 총 5명 22명의 시민 고충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요 민원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출산 및 육아정책 건의 ▲이수도 계단형 보행로 개선 ▲아파트 진입로 건축신고에 따른 거주민 고충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건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노 시장은 장애우 양육 부모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조사표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약속했고, 출산·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출장장려금 확대와 어린이집 특성화 지원, 어린이집 교사 보육



아동 수 축소 등 시민체감형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수도 계단형 보행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현장 점검할 것을 약속하고 아파트 진입로 건축신고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건축주의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것을 당부서에 주문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은 인근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순천=조성준 기자

순천, 지역복지사업 평가 9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복지 분야 3관왕 달성...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위상 입증

순천시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

수상은 보건복지부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상 ▲민관협력 및 자연연계 부문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장관상 등 총 3개 분야로 36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 복

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결과의 충실성, 적절성,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5개 분야, 15개 평가지표)를 평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유연한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기본권 유지와 일상 회복을 위

해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과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자체사업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순천시는 2년 만에 민관협력 및 자연연계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민·관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여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적 안전망을 구성·운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순천=조성준 기자

해남, 내년 3414억 원 국·도비 확보 ‘역대 최대’

정부예산 감축 치열한 국고확보 쟁탈전... 국도비 증가 값진 성과 거둬

지난 24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다. 해남군의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3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원 증가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당시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해서는 1500여억원 가까이 늘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초로 건전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공식화하고, 국회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3000억원 순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고 확보 쟁탈전에서 거

둔 값진 성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분야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분석·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억원(총사업비 594억원) ▲상승 가뭄지역에 항구적 가뭄 해소 및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총사업비 485억원)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29억원(총사업비 290억원) ▲생활하수

처리로 하수도 보급률을 개선할 신규 하수관로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원(총사업비 234억원) 등이다

아울러 오시야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오시야노 리조트 호텔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 신안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대형 SOC사업도 예산 반영돼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발로 뛰어온 결과 매년 국도비 확보 기록을 갱신하는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성황스포츠크터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

광양시는 올해 10월 성황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 무료 시범 운영을 시작해 3만 6000여명이 이용했으며, 유료로 전환하는 2023년 1월 3일부터 수영장을 개장해 체육관 정상 운영에 나선다.

체육관 이용시간은 연중 06~22시이며, 수영장은 평일 06~22시, 주말은 09~18시 개장하고,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과 신정, 설날 및 추석 전후 3일간은 휴무이다.

생활체육은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에어로빅, 요가, 족구, 배구, 농구가 있으며, 수영장 강사는 성인 새벽반, 성인 오전반, 오후 어린이반, 성인 저녁반, 아쿠아 강습반 프로그램을 꾸려 운영하며, 2023년 상반기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성황스포츠크터 수영장 개장에 맞춰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시내버스 1000, 1001번 노선 정류장을 기존 골약동사무소(성황동 410-4, 409-2)에서 성황스포츠크터(성황동 1988, 1981)로 옮겨 내년 1월 1일부터 이설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버스 운행 횟수는 06:30(첫차)~22:40(막차) 동안 1000번은 53회/1일, 1001번은 48회/1일로 상·하행선 매회 약 15분 간격으로 배차하며, 중앙터미널 기점으로 중앙동 일원과 성황도이지구 노선을 왕복 운행한다.

진도 ‘해넘이·해맞이’ 취소

코로나 재유행·안전사고 예방

진도군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에 예정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넘이 행사는 올해 12월 31일 지산면 세방나조 전망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또 내년 1월 1일 진도타워, 가계해변, 침향산, 조도등대 등 5개소에서 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군은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취소하지만 이들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맞춤형 복지혜택 결산

취약계층 희망 키우는 복지 실현 서비스 제공

광양시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2년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세 가지 기조로 복지정책의 추진을 완료했다.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지난 4월 지역 내 5개 봉사단체(△한마음봉사회 △광양시해병대팔각회 △광양112자전기봉사대 △여성자원봉사광양협의회 △우주환경)와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봉사단체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협의체는 자체 사업(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외 6개)과 공모사업 1건, 공동사업 1건 등 9개 사업(사업비 1,400여만 원)을 통해 취약계층 994명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지역 내 개인과 단체로부터 다양한 후원을 받았으며,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 후원받은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썼다.

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네트워크 ‘우리 동네 빛누리단’을 조직했다.

또한,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발굴하는 등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 가지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쓴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19일 2022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올 한해 추진한 복지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논의했다. /광양=조성준 기자